

2023학년도 1학기 제1차 지필평가

2023년 4월 26일 1교시
(국 어) 과 목 과 목 코 드 (01) 제3학년

※ 확인사항

- 먼저 시험지 전체 페이지 수를 확인하십시오.
- OMR 카드에 성명과 번호, 과목코드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배점안내

| 배 점 | 문 항 수 | 점 수 |
|-----|-------|-----|
| 선택형 | 4 | 24 |
| | 5 | 40 |
| | 6 | 36 |
| 계 | 20 | 100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보도블록 틈에 핀 썸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벌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 반칠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들.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 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 마중하, 「딸을 위한 시」

1.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말의 가락을 지닌 산문이다.
- ② 낫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다.
- ③ 일상의 경험을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한 실용문이다.
- ④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언어로 구체화하여 표현한다.
- ⑤ 함축적 의미는 비유적 의미보다 대체로 사전적 의미로 해석된다.

2. (가)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5점]

- ①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③ 화자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 ④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중심 소재를 열거하여 화자의 일상적 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가)에서 작가의 심미적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연은? [6점]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⑤ 5연

4. 밑줄 친 표현 중 (가)의 주된 심상과 다른 것은? [4점]

- ① 눈이 내린다/봄이라서/봄빛처럼 포근한 눈//
- 오규연 「포근한 봄」
- ② 하루종일 비가 서 있고/하루종일 나무가 서 있고
- 김용택 「비 오는 날」
- ③ 셋노란 은행잎이 달린 가지에/잎사귀도 빨갛게 물이 들었네.
- 김종삼 「단풍」
- ④ 눈 속에 파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 ⑤ 아침에/산 너머서 오는 버스/비린내 난다./물어보나마나 바닷가/마을에서 오는 버스다. - 나태주 「바다에서 오는 버스」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5점]

- ① 감동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일상의 사소한 대상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지닌 사람이다.
- ⑤ 구체적인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들려주듯이 대화체로 표현하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② ㉡: 작고 보잘 것 없지만 곳곳이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나고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③ ㉢: 소외된 존재지만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④ ㉣: 평범하지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시대상황을 알게 한다.
 ⑤ ㉤: 화자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며 화자를 다시 걷게 만드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뤼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깁니다. 나는 몇 주 동안 내내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기르던 라브리 종 개와 양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지냈지요. 이찌다 약초를 따러 온 뤼브롱산의 은둔 수도자나 피에몽 지방 숲쟁이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요.

(나) “그러니까 양치기는, 여기 사는 거야?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심심할까! 무얼 하지? 무슨 생각을 해?”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요. 그렇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나 떨리던지 단 한 마디도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도 그걸 눈치챈 것 같은데, 글썽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짓궂게도 나를 한층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요.

㉡ “그럼 양치기 여자 친구는? 가끔 만나러 올라오나? …… 그 여자 친구는 분명 황금 염소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만 타고 다닌다는 에스테렐 요정이거나.”

내게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까르르 웃으며 얼른 가려고 서두르는 -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지는 - 아가씨가 바로 그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했습니다.

(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이라도 한테서 밤을 새워 보았다면 알 겁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럴 때 샘물은 낮보다 한결 또랑또랑한 소리로 노래하듯 흐르고, 연못은 작은 불꽃들을 밝히지요.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요. 허공 중에는 뭔가 삭삭 스치는 듯한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풀들이 쑥쑥 커 오르는 소리처럼 들려온다니까요.

(라)㉢ “어쩔 별이 많기도 하지! 아, 아름다워라!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양치기는 저 별들 이름을 알아?”

“알다마다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게 ‘성 자크의 길(은하수)’ 이에요. 프랑스에서 끝장 에스파냐까지 가지요,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용감한 샤를마뉴 왕에게 길을 알려 주느라 저길 표시로 삼은 거랍니다. 좀 더 멀리 보시면, ‘영혼들의 수레(큰곰자리)’ 가 있어요. 수레의 굴대 네 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 앞에 보이는 별 세 개는 ‘세 마리 짐승’ 이고요. 세 번씩 별과 마주 보는 아주 작은 별은 ‘짐수레꾼’ 이죠. 그 별 주위로 별들이 간뜩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시나요? 저건 하느님이 하늘 나라에 받고 싶지 않았던 영혼들이랍니다…….(하락)”

(마) 우리 주위에는 별들이 커다란 양 떼처럼 유순하게,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앓은 채로 이따금 난 그러 보곤 했어요.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럿여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요.

- 알퐁스 도데, 「별」

(바)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겹으로 보름을 가게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두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7.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② 구성의 3요소에는 주제, 사건, 문제가 있다.
 ③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④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⑤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그리고 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 과거회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② ㉠: 1인칭 시점이며 공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
- ③ ㉡: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로 밝고 쾌활한 아가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④ ㉢: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나와 아가씨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
- ⑤ ㉢: 은유법으로 원판님은 아가씨이다.

9. 다음은 (바)의 특징이다. (가)-(마) 중 이와 유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단락을 고른 것은? [6점]

- 시적인 문체를 통해 배경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 시각적·청각적 심상과 비유 등을 활용한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0. (가)-(마)에 대한 작품 감상평과 그 관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6점]

- ㉠ 효용론적 관점: 양치기의 아가씨에 대한 사랑을 통해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깨달았어
- ㉡ 반영론적 관점: 이 글은 크고 두드러진 갈등 구조 없이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편이야.
- ㉢ 표현론적 관점: '나'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이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가 나에 대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어.
- ㉣ 내재적 관점: 작가는 프랑스 남부 시골마을 출신으로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전원적인 작품을 많이 썼을 거야.
- ㉤ 내재적 관점: 양치기가 아가씨를 동경하고 사랑하지만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 아가씨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 때문일지도 몰라.

11. 밑줄 친 부분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

- ①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신다. - 주격 조사
- ②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 목적격 조사
- ③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 관형격 조사
- ④ 우리는 학생이니가 열심히 공부하자. - 서술격 조사
- ⑤ 명수는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천재가 아니다. - 보격 조사

12. 밑줄 친 조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나는 영화를 반장으로 봤다. - 원인
- ②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 방법
- ③ 놀이터에는 명수하고 영희랑 같이 가자. - 자격
- ④ 지금은 아프지 않냐고 질문하였다. - 직접 인용
- ⑤ 1회용 식기는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 재료

13.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가 옳바르지 않은 것은? [5점]

- 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일다.
- ㉡ 집을 대킬 만큼 크게 짓다.
- ③ 비행기만큼 빠른 교통수단도 없지.
- ④ 네가 가져간 만큼 나도 가져가겠어.
- ⑤ 노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14.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다.
- ② 현회야, 다음에는 더 예뻐라.
- ③ 여름엔 시원하리 수영장에 간다.
- ④ 강아지는 주인 앞에선 가만히 있는다.
- ⑤ 나는 더 예뻐려고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다.

15. 다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 명수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다.
- ㉡ 명수는 얼굴에 땀이 나도록 내달렸다.
- ㉢ 명수는 우리가 당번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 ㉤ 명수는 내가 어제 아팠다는 사실을 물라다.

- ① ㉠에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달리 ㉤은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 ⑤ ㉡과 달리 ㉢에는 안긴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16. 다음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점]

- ㉠ 그가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 ㉡ 나는 그가 이 물건의 주인임을 눈치켰다.
- ㉢ 어머니께서 옆집에서 일은 딸기는 달았다.

- ①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②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다.
- ④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과 ㉢의 안긴문장은 용언을 수식한다.

[17-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라는 문장의 경우 주어 '나는' 과 서술어 '마셨다' 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 인가요?

선생님: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라는 문장은 ㉡()을(를) 안은 문장이야. '따뜻한' 의 주어가 ㉡()와 중복되어 생략된 것이지. 이처럼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절로 안길 때 두 문장에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단다.

1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 ㉠ | ㉡ | ㉢ | ㉣ | ㉤ |
|---|-----|-------|-------|-----|-----|
| ① | 홀문장 | 접문장 | 접문장 | 관형절 | 나 |
| ② | 홀문장 | 접문장 | 접문장 | 관형절 | 자 |
| ③ | 홀문장 | 안긴 문장 | 접문장 | 명사절 | 나 |
| ④ | 홀문장 | 안은 문장 | 안은 문장 | 관형절 | 차 |
| ⑤ | 홀문장 | 이어진문장 | 이어진문장 | 부사절 | 마셨다 |

18.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①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 ② 바위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
- ③ 그녀는 달리는 강아지를 쫓았다.
- ④ 그는 바구니에 있던 딸기를 끼웠다.
- ⑤ 그녀는 그가 시사한 한 사실을 몰랐다.

[19-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함박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 ㉣ 네가 응원해 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19. 나머지 네 문장과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앞뒤 말을 의도의 의미로 연결하는 연결어미가 사용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사항

- OMR 카드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오.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낙원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